

Market Index / 17일

코스피지수 ▼	3133.73 -29.52	코스닥지수 ▲	979.77 +2.03	유가(WTI, 달러) ▲	60.05 +0.58	환율(원)	1USD 100₯	1125.35 1062.60	1086.65 1026.06	1EUR 1CNY	1362.35 180.31	1309.19 163.15
---------	-------------------	---------	-----------------	---------------	----------------	-------	--------------	--------------------	--------------------	--------------	-------------------	-------------------

제주형 웰니스관광 육성 민·관·학 ‘한뜻’

관광공사 중심 23개 기관·단체가 거버넌스 구축 코로나 후 개별여행객 위주 체류 변화에 대응 웰니스 관광 여행자 위한 접근성·편의성 제고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제주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제주형 웰니스 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데 공공기관, 학계, 민간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해 효과가 주목된다.

제주관광공사는 18일 오전 제주웰컴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광·경제·연구분야의 23개 기관·단체가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추구하는 새로운 개념의 관광트렌드다.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민간단체로

꽃자왈공유화재단, 제주관광협회, 제주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스타트업협회, 제주올레가 참여한다. 연구기관에서는 제주관광학회와 제주연구원, 대학으로는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가 참여한다.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선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에너지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참여한다. 국가공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

부가 함께 한다.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 전반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청정 제주의 가치를 높이면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받는 힐링·건강·치유·마을 관광을 융·복합한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결합한다는 게 관광공사의 구상이다.

참여기관·단체들은 앞으로 ▷침체된 제주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주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조사 강화 ▷제주형 웰니스 관광기업 육성 지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 양성 ▷신규사업 기획과 국비 발굴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도내 웰니스 관광 사업체와 마을 관광의

브랜드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웰니스와 마을관광 콘텐츠 융복합상품 개발·브랜드 ▷권역별 제주 웰니스 산업 클러스터 구축 ▷웰니스 관광 여행자를 위한 접근성·편의성 제고에도 힘을 모은다.

이와 함께 제주웰니스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공동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가치 창출, ICT 기술 융합 스마트 웰니스 관광 환경조성, 웰니스 관광 국제포럼 개최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위드(with) 코로나,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관광객은 소규모 형태의 그룹이나 개별여행객들이 한 곳에 장기간 체류하는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내·외 23개 기관·단체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주형 웰니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간 재테크 핫 이슈 글로벌 증시 상승과 한국 증시

급등락보다 횡보나 완만한 상승세 전망

설 연휴 기간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했다. 일본과 중국 역시 연휴 전까지 연중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참했는데, 유독 국내 코스피 지수는 1월에 나타난 상승세 이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000~3100포인트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와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지난해 11월 초 글로벌 증시가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강세 기조를 이어가기 시작한 후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그동안 여타 주요국 지수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 니케이 225지수가 최근 신고가를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금 감소가 없다면 코스피 자체가 고액예탁금 감소에 비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하락금 감소와 이어지는 자금 유출로 보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량은 작년 8-10월 조정 국면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작년 11-12월 추세 형성 시점의 저점대보다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거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코스피 대형주 지수가 1월 11일 고점대를 형성한 후 완만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거래량이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하락금 감

작년 말 후 S&P500·니케이 지수 대비 상승률 높고 고객예탁금 65조서 추가유출 없다면 저가매수 기회

경신하기는 했지만 작년 10월 말 대비 28.48%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10월 말 대비 20.33% 상승했다.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7.9% 상승했는데, 니케이와 S&P500 지수는 각각 7.56%와 4.76% 상승해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유동성 측면에서 본다면 고객 예탁금은 지난 9월 기준 65조원 수준으로, 고객예탁금이 가장 컸던 1월 12일 74조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는 점차 감소했다. 고객예탁금과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형성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 고객 예탁금 감소가 증시에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65조원이라는 예탁금의 절대적인 수치 수준이 지난해 11월 17일 형성된 고점대 수준으로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면 적은 수준이 아니어서 충분히 현 시점에서 하락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가 더욱 진행된다면 조정국면이 다소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다만 파생시장지표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상승하던 VKOSPI(변동성지수)가 하락하면서 변동성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도 변동성이 안정화되는 상황이기에 연초에 보여줬던 코스피의 급등락 과정에서 30%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안정을 찾으며 25%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추가적인 급등락보다는 횡보 또는 완만한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식 비중을 확대하려고 기다리던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장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 본격

24일부터 원예시설 판매 작년 피해 보험금 210억원

태풍, 집중호우,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제주에서 원예시설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총국장 한재현)은 원예시설과 버섯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판매가 이달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어진다고 17일 밝혔다.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판매 시기가 다른데, 도내에선 23개 품목이 가입 가능하다. 감귤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에 대해 태풍·폭염·동상해·강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화재 피해 등을 보장해주고, 버섯 농작물재해보험은 버섯재배사·부대시설·버섯에 대한 자연재해와 조수해 피해를 보장받는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

험료의 15%를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 35%를 지원해 준다. 가입은 도내 지역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제주에선 해마다 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태풍으로 인한 원예시설 피해가 반복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도내 원예시설 4950ha 중 4146ha가 가입해 83.8%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원예시설 농가에 21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01억원, 148억원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과 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이나 도내 지역농·축협에 문의하면 된다.

한재현 총국장은 “해마다 태풍, 가뭄 등으로 농작물과 시설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항공 승무원들의 새학기 선물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지난 16일 새학기를 앞두고 제주보육원 어린이 10명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새학기 선물과 직접 준비한 손편지와 보육원 운영에 필요한 생활용품세트를 전달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지식재산 창업교실 모집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IP창업존은 '제19기 IP(지식재산) 창업교실' 교육생을 3월 10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청·제주특별자치도·한국발명진흥회 지원사업인 IP창업교육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실천형 교육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설되는 IP 창업교육은 지식재산기반 창업을 원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3월 16~26일 총 40시간에 걸쳐 특화 교육으로 진행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이 병행 실시되는데, 지식재산 선행기술 조사 등 특허관련 교육과 스타트업 비즈니스모델, 창업자금조달 등 창업 교육으로 구성된다. 교육생은 교육비와 교재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문의 755-2169.

키위농가에 희소식

21세기 최첨단 비료 → “이노페스” 탄생 희토류가 들어있는



이노페스 성분

원료명	효과
희토류	염류중화·토양개량·천연항균 작용
식이유황(MSM)	천연항균 작용
부식산	유기물 대체·토양개량
벤토나이트	토양개량
고삼·백합추출물	토양해중기피
아미노산	천연질소질 공급
미량요소(Mg, B, Mo, Cu, Fe, Mn, Zn)	필수 미량요소 공급

특징

- ☆가스피해가 없다 ☆항균작용으로 토양이끼 억제
- ☆염류중화 작용으로 뿌리생육 발달로 역병예방
- ☆시비가 간편하며 시간과 인건비 절약 ☆희토류 첨가로 작물의 기작 조절

사용방법

키위 = 1,000평 기준 20~25포(포당 15Kg)
※ 다른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산처 (주)포트라

판매처 농협·김협

공급처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